

# ‘얼씨구 좋다 어디 신나게 열창해 볼까?’

전주 동남문화광장에서 열린 제5회 한옥마을 전국 트로트가요제 본선 입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회장 김양욱)가 주최한 제5회 한옥마을 전국 트로트가요제가 지난 12일 전주 동남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 전주시, 전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수정과 한울타리협회가 후원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로 진행됐다.

참가신청자 48명 중 13명의 본선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가요제에서 장선호(26, 전주)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장영애(58, 전주)씨가 최우수상을, 권진열(대구), 김봉섭(경남 진주)씨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권민욱(전주), 유동기(익산)씨가 우등상을 수상했다. 가요제와 병행해서 열린 주요 공로자 표창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

대상 장선호 · 최우수상 장영애씨 우수상에 권진열 · 김봉섭씨 차치

수여식에서 박영춘(진안), 오병희(전주), 류명현(익산), 송희숙(전주), 임문욱(전주), 이수정(전주)씨가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양욱 회장은 대회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가 있기까지 성원해주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리를 함께하신 참가자, 시민, 관객 여러분께도 재미있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문욱 제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열정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할 것"이라며 "대회에서 실력을 발휘할 13명 모두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추진위원장은 "시민 모두가 즐거워지는 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유치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임문욱 제전위원장의 인사말.



김양욱 회장의 환영사.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수정 대회 추진위원장.



대회공로상을 받게 된 박영춘씨.



김양욱 회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송희숙씨.



대상을 수상받은 장선호씨(사진 오른쪽).



무대 위에서 열창을 하고 있는 장선호씨.



대회 공로패를 수상받은 임문욱 제전위원장과 이수정 추진위원장(사진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받은 장영애씨의 무대.



대표곡 '덕분에'로 유명한 초청가수 구재영씨.



사회를 보고 있는 김연경씨.